**한 가지 부족한 것**

<막 10:17-27>

17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19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1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2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23 예수께서 둘러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24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26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27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 천국에서도 계속 누리게 될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 놀라운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하늘에 속한 새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영생’은, “영원으로까지 이어지는 생명”이자, 또한 “영원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는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진정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도 대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행복을 이해하고 추구하는 방식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 행복으로 느껴지는 상황이 다른 이에게는 불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불행으로 보이는 일이 시간이 지나면 더 나은 행복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처음의 행복의 기준을 평생 바꾸지 않고 살아가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 그 기준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모두가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일까?

이제껏 그는 나름 선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율법의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거나 억울하게 피해를 입힌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는 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 켠에는 계속 뭔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니, 예수님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나보다 더 선한 삶을 살고 있기에, 내가 모르는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이 궁금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결국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 그 앞에 꿇어앉게 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가끔씩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은 허전함을 느낄 때는 없습니까?

직장이나 가정, 학교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가족들과 더불어 누리고 싶은 거 어느 정도는 누리며 살고,

주변 사람들과 큰 문제 없이 관계를 이어가고,

교회예배나 행사에도 나름 성실히 출석하며 지내지만,

내 삶에서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참 행복의 길일까?”

그리고 본문의 청년이 기대하듯, 그 답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청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 자신의 노력만으로 온전히 선한 삶을 살 수 없음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의 선한 삶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임을 넌짓이 알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이 자기가 잘났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그 청년은 진지한 구도자로 보였습니다.

그의 속에 있는 영생에 대한 갈망, 참 행복에 대한 갈망에 예수님은 주목하셨고, 그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영생에 잇다은 참 행복의 삶으로 인도해주고자 하셨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처럼 단지 “나를 따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수행해야 할 부담스런 과제를 하나 던져주셨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던 예수님은 그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음을 깨우쳐주기 원하셨습니다.

나아가 그 부족함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가진 재물이 많았기에 그 말씀으로 인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는 영생을 갈망했지만, 그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그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가 보다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에게 부족했던 것은, 이 땅이 아닌 하늘 곳간에 보화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청년은 기존에 갖고 있던 것에 뭐 하나를 더 얹어서 행복해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제시하신 것은, 오히려 그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을 잃거나 포기할 때, 비로소 열리게 되는 새로운 행복의 세계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 새로운 행복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 천국 시민의 역설적 행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일상의 언어로 번역된 메시지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의미를 보다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내면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에야 너희는 바깥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설적 실존과 행복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확실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것 중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갖는다고 해서 더 행복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남다른 시야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허전함과 갈급함 속에서 참 행복을 찾아 예수님께 나아온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길을 바로 찾은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17:3)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눈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차원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풍성해집니다.

물론 이 과정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리고 고뇌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참 행복의 길을 찾아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어쩌면 우리는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될 지도 모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 자녀에 대해 너무 걱정하고 집착하고 있다면,

어쩌면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지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아가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이것은 분명 새로운 행복에의 초대일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에서의 부와 쾌락과 성공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면,

어쩌면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마음의 빈 공간이 허하기 때문에, 나를 좀 더 그럴싸한 존재로 치장해줄 것 같은 다른 것들에 집착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반면, 하나님으로 충분히 배부른 사람은 그보다 못한 다른 것들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아가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함과 만족과 영광됨을 더 사모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면, 이 역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행복에의 초대일 것입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간 본문의 부자 청년이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려 노력하며 평생 자기 소유에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고민 끝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뒤늦게라도 예수를 좇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의 대화 내용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돌아간 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놀라 서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처럼 부담스런 요구를 하신 것은, 그가 그 즉시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더 온전한 행복에로 나아올 수 있으리라 믿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청년이 사랑스러우셨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셨음을 아셨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도 새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내 마음의 불평하는 소리를 듣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을

더욱 사모하고 누리고 또한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행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영원히 만족이 없음을 저희가 잘 압니다. 오히려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며 채워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사모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누리고 전하기를 소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체코와 한국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특별히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는 김희영,차은영 집사님 가정의 앞길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